



북녘 어린이 빵공장을 지원하는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 2012년 시즌이 18일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해 공연모습.

“사랑의 빵공장 첫 가동합니다”

18일 빛고을 시민회관...2012년 대장정 첫 시작
 보헤미안 소울·퍼포머 김광철씨 등 새얼굴 합류
 19~24일 전시실서 리얼친 달거리 사진기록전



혹시 '옥류'라는 빵을 아는지 모르겠다. 평양 대동강변에 자리잡은 북녘어린이 영양빵공장에서 하루에 1만2000개씩 생산되는 '옥류'는 북녘 어린이들의 소중한 먹을거려다. '옥류'에는 광주시민들의 정성도 담겨 있다.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을 찾은 이들이 십시일반 보낸 작은 사랑들이 아이들을 키웠다.

지난 2003년 첫선을 보였던 '김원중 달거리 공연'(매달 세번째 주 월요일)이 2012년 대장정을 시작한다. 북한의 빵 만드는 공장을 지원하는 달거리 공연은 2003년~2004년 시즌 이후 5년간 휴지기를 거쳤다. 지난 2010년 다시 시작한 후 3년 동안 탄탄한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가수 김원중씨가 기획을 맡고 있는 '달거리 공연'은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장르간 소통이 큰 힘이다. 무엇보다 해마다 버전업된 모습을 선보이고 있는 게 장점이다.

올해 공연 역시 새로운 예술인들이 합류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생겨났다.

강운숙과 재즈트리오(강운숙·임민수·김성광), 피아니스트 이상록과 소프라노 유령민으로 구성된 '보헤미안 소울'이 참여한다. 여기에 몸의 언어를 들려줄 퍼포머 김광철씨가 '몸짓'이라는 코너를 준비중이다. 또 하나 의미있는 행보는 지역 젊은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코너 '새로운 얼굴을 소개합니다'. 어느덧 지역 문화계의 든든한 큰형이 된 기존 멤버들이 후배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그들에게 힘을 보태주기 위해 판을 벌여주었다.

기존의 참여자인 김원중과 느리나무밴드, 주홍(샌드 애니메이션), 윤진철(국악)씨도 여전히 힘을 보탠다.

달거리 공연의 또 하나의 불거리는 공연장 무대를 장식하는 그림들이다. 지역 대표작가들의 그림이 슬라이드 형식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살아움직이는 전시회를 감상하는 기분이다. 김해성씨가 전체적으로 무대미술을 맡아 진행한다. 3월에는 강남구 작가의 그림이 내걸리고, 앞으로 김진화·박구환·백준선·이종립·전현숙·정용규·조근호씨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올해 첫 무대인 3월 공연은 '눈 녹이고 봄 온다'라는 주제로 18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초대손님은 임수경씨다. 빵만드는 데 힘을 보태는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무대인 터라 상징적인 인물로 선정했다.

달거리 공연은 광주에서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지난 2010년에는 인천 초청공연을 진행하는 등 지역바깥에도

입소문이 많이 난 상태. 하지만 작품의 규모 등으로 쉽게 외지 공연에 나설 수 없어 대안 마련을 모색중이다.

달거리 공연을 기록하는 일도 진행중이다. 인터넷 사이트(www.kimwonjoong.com)를 통해 지난 공연들을 소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공연실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뛰고 있다.

또 사진작가 리얼친씨가 지난 1년간 앵글에 담은 공연의 흔적을 소개하는 '리얼친 사진기록 2011 달거리' 전시회도 19일부터 24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리씨가 촬영한 1만여장의 사진 가운데 공연의 느낌을 만끽할 수 있는 45점과 260여점의 이미지를 만날 수 있다.

공연의 입장료는 따로 없고 공연 관람 후 로비에 마련된 모금함에 작은 정성을 더하면 된다. 달거리 공연팀은 지난해 수익금 1250만원을 북녘어린이영양빵 공장 사업본부에 기부했고, 특히 3월에 모인 성금은 일본 샌다이 돌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이제 당신이 작은 힘을 보탬 때다.

김원중씨는 "북녘 어린이들을 돕는 것과 함께 우리 지역 문화를 소개하고 발굴하는 것도 달거리 공연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후배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예술인들의 참여로 공연이 더욱 풍요로워졌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0년...사색의 발자취

31일까지 일곡갤러리 심금자 개인전

심금자씨가 16일부터 31일까지 일곡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작가가 10년 넘게 작업한 성과물을 발표하는 초대전 형식의 전시회로, "그림이 좋아 시작했던 작업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작가의 열정이 묻어난 30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복사꽃이 필 때'나 '봄맞이', '소쇄원' 등의 작품은 광주·전남의 자연풍경에서 느끼는 감동을 화사하고 그윽한 색채로 나타내고 있다. 마음까지 맑아지고 파파해지기 쉬운 시기에 감성을 어루만져줄만한 작품들로, 언뜻 깊은 사색의 흔적도 엿보인다. '무등대전' 등 공모전에 출



'미암풍경'

품했던 작품들을 비롯, 일상적 소재나 풍경을 표현하거나 작가의 독자적 감흥이 어우러져 깊은 사색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도 선보인다. 문의 010-9293-2021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봄 부르는 흙퍼리 하모니

17일 유·스퀘어문화관 'M.E.M 오카리나 앙상블'

흙으로 만들어진 오카리나는 따뜻한 음색이 매력적인 악기다. 단독악기로 연주되는 것도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화음이 어우러진 중주곡들도 인상적이다.

M.E.M 오카리나 앙상블 창단연주회가 17일 오후3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M.E.M 오카리나 앙상블'은 광주대 대학원 음악학과 음악교육 경영 전공생들과 전문연구자 과정 학생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번 공연에서는 오카리나 2중주와 7중주곡을 들려준다. 레퍼토리는 '오블라디 오블라다',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영화 '미션' 주제곡 '가브리엘의 오보에',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4번' 등이다. 출연진은 서이화·임정희·이향옥·양민자·최원영씨 등



20여명이다. 또 오카리나 전국 앙상블 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한 오카리나 앙상블 '코리아'가 특별 출연, 로시니의 '윌리엄 텔' 등을 들려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고전 소나타' 만나러 가는길

19·20·22일 유·스퀘어문화관 'C.N 피아노 정기연주회'

C.N 피아노 정기연주회가 19일~20일, 22일 3일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전기 고전 소나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하이든과 바흐, 모차르트, 스칼라티, 클레멘티 등의 곡을 연주한다.

19일에는 이현주·박행숙·함지연·강효미·이혜영·박수영씨가 출연하며 20일에는 한진숙·주연화·동수정·황미경씨, 마지막 22



박행숙

일에는 이인미·박의혁·김연·장훈화·최유진·조현영씨가 무대에 선다. C.N피아노(회장 정환숙)는 전남대 사범대학과 예술대학을 거쳐 대학원을 졸업한 이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1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떡국정식(기본3인이상) 15,000원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최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간 유·스퀘어 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샴(스프레이사제) 인터넷 · 안마기 · 이온원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